

4.1.2026

주님 공현 대축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487번> 동방의 세 박사	<가톨릭 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가톨릭 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제 1독서 | 이사야서 60,1-6

화답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좌)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우)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좌)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우)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독서 | 에페소서 3,2.3. 5-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1-12



오늘의 복음 - 마태오 2,1-12

1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 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 교육: 악덕과 미덕 - 영적 투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 교부들은 식탐 다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두 번째 "악마", 곧 두 번째 악덕이 '음욕'(lussuria)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식탐은 음식에 대한 탐욕인 반면, 이 두 번째 악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탐욕", 특히 성적 영역에서 인간들이 서로 맺고 있는 해로운 유대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가서는 약혼한 연인 사이의 멋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성의 매우 아름다운 차원인 성적 차원과 사랑의 차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1코린 5,1). 바오로 사도의 질책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것을 건강하지 않게 다루는 문제와 정확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 곧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살펴봅시다. 오늘 참석자들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신비스러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서 왜 그토록 강렬한 경험이 되는지 우리 중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 빠지는 일은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놀라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라디오에서 듣는 대부분의 노래는 불타오르는 사랑, 항상 찾아 나서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랑,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랑,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악덕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인간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너그러워지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편지와 시를 쓰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더라도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모로 아무런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강력한 사랑이 다소 순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잘 모르더라도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하는 약속을 기꺼이 행합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이 넘치는 이 "동산"은 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음욕이라는 악마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음욕이라는 이 악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특히 끔찍합니다. 첫째, 음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만으로도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시작된 관계가 상대방을 소유하는 관계, 존경과 경계심이 없는 해로운 관계로 변질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순결이 결여된 사랑입니다. 순결이라는 미덕을 성적 금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순결은 상대방을 절대 소유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것, 나의 것이 아닌 상대방의 몸, 심리, 영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음욕은 이 모든 것을 조롱합니다. 음욕은 약탈하고, 앗아가고, 서둘러 소비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요구와 쾌락에만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음욕은 모든 사랑 표현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존을 지해롭게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성, 충동, 감정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음욕을 품은 사람은 지름길만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여정이 느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루함과 동의어가 아닌 이러한 인내심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음욕이 위험한 악덕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쾌락 중에서도 성적 쾌락은 매우 강력합니다. 모든 감각과 얽혀 있는 성적 쾌락은 몸과 마음 모두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하지만 성적 쾌락이 인내로 훈련되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이를 사랑의 춤으로 바꾸는 관계와 역사 안에 새겨넣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사슬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적 쾌락은 관계가 누락된 만족감, 곧 중독 같은 형태를 낳을 수 있는 음란물에 의해 훼손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사랑,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순수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음욕과 타인을 성적으로 "사물화"하는 것과 맞서 싸우는 일은 평생 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받을 상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느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피조물에 아로새기신 아름다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모험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함께 역사를 만드는 게 낫다고 - 세상에는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 소유의 악마에게 굴복하는 것보다는 애뜻한 사랑을 함양하는 게 낫다고 -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 , 정복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끕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슬프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신들 앞에 누워 계신 신비를 바라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하늘에서 땅을, 하느님 안에서 사람을,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또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어린 아기의 작은 육신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기를 보고 나서 의심을 품지 않고 그를 믿으며,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세 가지 상징적 선물로 보여주고, 유향으로 하느님을, 황금으로 임금님을, 몰약으로 죽음의 운명에 놓여있는 사람을 고백합니다.”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

공현 후 월요일 성무일도 독서기도 중..

공지 사항

1. 2026년 묵주기도 모임 안내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한 번도 묵주기도 모임에 참여해보신 적이 없다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한 번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묵주기도의 유래>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1단(段)으로 삼아, 각 단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6세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깊은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라틴어로 **로사리오(Rosario)**라고 부릅니다. **장미 꽃다발 또는 장미 꽃밭**이라는 뜻이지요. 박해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인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해를 피한 신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거두어들이면 서 장미관을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쳤다고 하지요.

한편 수도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은수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매일 시편을 50편, 100편 또는 150편을 바쳤는데, 이것이 나중에 수도자들의 성무일과(聖務日課)가 됐습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시편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바치는 회수를 세기 위해 작은 돌맹이나 곡식알 같은 것을 실로 묶어서 굴리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묵주로 발전한 것이지요. 12세기 이후 특히 삼종기도가 널리 보급되면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자 열심한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 대신에 성모송을 50번 또는 150번씩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5세기에 와서입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랑 드 라 로슈 수사가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나누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고, 이것이 퍼져 나가면서 16세기 경 전통적인 15단 묵주기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신비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에 묵주기도에 추가하였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 본다이 총격 사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봉헌금 & 교무금 | (12월 27일 ~ 1월 2일)

봉헌금	\$ 720				
교무금	\$ 175				
구민식	권묘순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허준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민수기 6,24-26)